

2. 통화정책

〈글로벌동향〉

-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 및 일본 등 여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기존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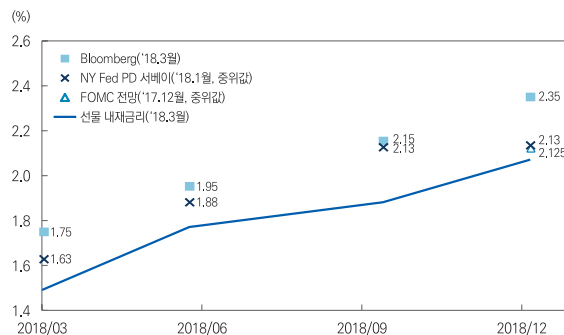
〈국내동향〉

- 한국은 기준금리가 1.50%로 동결 된 가운데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매우 완만한 금리인상 기조를 견지할 것으로 전망

가. 글로벌동향

- 미 연준은 2018년 1월 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를 1.25~1.50%로 동결하였으나 경제에 대한 평가를 상향조정하며 3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
 - 노동시장 호조세가 지속되고 경제활동 전반이 '견조한 속도'(at a solid rate)로 확장세를 이어 가는 것으로 평가
 - 2018년중 금리인상 횟수를 당초 3회에서 4회로 예상하는 예측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(Bloomberg)

미 연준 금리인상 경로에 대한 연준 및 시장 전망



주 : Bloomberg 서베이는 금리 상단 기준

자료: Bloomberg, FRB, NY Fed

- 유럽중앙은행은 2018년 1월 정례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정책금리를 동결하는 한편 자산매입 프로그램 및 장기간 현 금리수준 유지 방침 등의 기존 입장을 고수
 - 2018년 1월부터 월 300억유로로 축소된 자산매입은 예정대로 9월말까지 진행하되 경기전망과 금융시장 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 매입 규모와 기간을 확대할 계획
- 일본은행은 2018년 1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자산매입 규모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한편 기존 국채수익률곡선 관리정책(단기금리를 -0.1%, 장기(10년물)금리를 0% 수준으로 유지)을 지속하기로 결정
- 중국인민은행은 안정중립적인 통화정책기조를 유지

나. 국내동향

- 한국은행은 2017년 11월 이후 기준금리를 1.50% 수준으로 동결
- 향후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경계감이 존재하나 가계부채 충격 가능성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등을 감안하여 2018년중 금리인상이 1~2회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

기준금리 수준별 예상기관 수(2018년 3월 기준)

기준금리	2018년 1/4분기	2018년 2/4분기	2018년 3/4분기	2018년 4/4분기
1.50	20	11	2	1
1.75	0	9	17	11
2.00	0	0	1	8
전체	20	20	20	20

자료: Bloomberg

연구위원 강현주 (02-3771-0850, hjkang326@kcmi.re.kr)

연구원 장효미 (02-3771-0872, janghm@kcmi.re.kr)